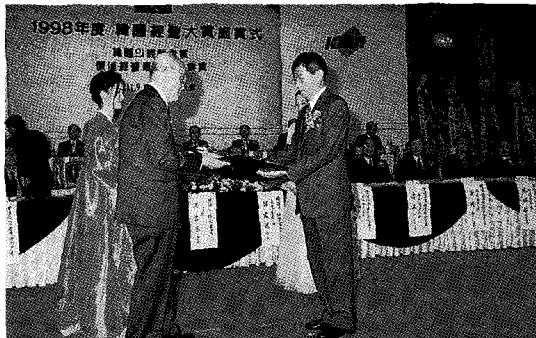




한국양회공업협회

이재복 회장,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이사장 취임

이재복 회장이 지난 7월 7일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의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재복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경쟁력을 요구받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조직이든 개인이든 저마다 공정적·효율적이고 타당한 기능과 역할을 할 때 당당할 수 있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연구원이 전천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에게 주어지는데 우량기업을 격려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개별기업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수상은 '90년대 중반 이후 '함께 경영'과 '새로운 가치창조'를 경영방침으로 삼아 사업다각화와 경영혁신의 중장기 경영을 펼치는 등 부단한 노력과 이에 따른 결실에 대한 평가를 받은 데 그 의미가 있다.



동양시멘트(주)

최우수 기업가치상 수상

11월 9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98 기업대상 시상식에서 비금속광물·1차금속·조립금속부문 '최우수 기업가치상'을 수상하였다. 순수 민간단체인 한국능률협회 종합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98 기업대상 시상식은 업종별로 최고의 기업가치를 창출한 기업

삼척공장 무재해 1배 달성



삼척공장은 8월 15일자로 공장 가동 이래 최초로 무재해 1배(1백20만 시간)를 달성하여 9월 3일 삼척공장 본관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올 1월 19일부터 시작하여 8월 15일부로 1배 기준 시간인 1백20만 시간, 날수로 2백10일 동안 삼척공장에서 한 건의 재해도 발생시키지 않아 달성하게 된 이번 '무재해 1배'는 이로 인한 직접적인 유·무형의 효

과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안전의식 함양과 자신감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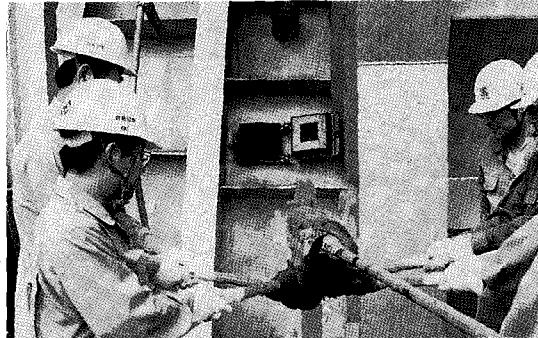
분과 메인 버너 등 주요 장비를 교체해 고효율, 저비용의 생산설비를 갖추게 됐다.



쌍용양회공업(주)

사우디 왕세자 초청 만찬 개최

김석원 회장은 10월 24일 저녁,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정부 초청으로 방한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왕세자를 위한 만찬을 개최했다. 이번 만찬에는 압둘라 왕세자를 비롯하여 알 파이잘 외무장관, 압둘라 쥬마 사우디아람코 총재 등 사우디아라비아측 인사와 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 박상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명규 국회의원, 권근술 한겨례신문사장 등 한국측 정계·재계·언론계의 관련인사 290여명이 참석했다.



동해공장 7호 키른 개조공사 마쳐

동해공장이 7호 키른 개조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9월 26일 화입식을 가졌다. 동해공장은 6월 25일부터 약 90일간의 개조공사를 통해 기존 쿨러를 열회수율이 뛰어난 독일 IKN사의 최신형 쿨러로 교체했다. 또 예열실 시스템을 개조하고, 키른 셀 부

최충근 북평공장장, TPM 세계대회 추진자상 수상

최충근 북평공장장이 10월 14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TPM (Total Productivity Maintenance : 전사적 설비보전) 세계대회에서 경영자 부분 추진자 TPM인상을 수상했다. 최충근 공장장은 SSPM (쌍용양회 공장관리제도) 활동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이 상을 수상했다. 북평공장은 지난해에 설립 이후 시멘트 최대 생산 및 출하 기록을 갱신해 단위 경영실적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한일시멘트공업(주)

국내 최초 25kg짜리 '가정용 레미탈' 개발

가정 내 소규모 보수공사용으로 40kg짜리 일반 시멘트보다 훨씬 작은 용량인 25kg짜리 '가정용 레미탈'을 개발 10월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이 제품은 시멘트와 모래가 미리 섞여져 있어 현장에서는 물만

부여 바로 사용되는 드라이풀탈형 시멘트로서 간단한 미장작업과 벽돌쌓기에 적합하며 작업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특성강화제도 함께 들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작업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장기보존해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지를 개선해 남은 재료는 재사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일측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가정용 레미탈’이 ‘한일 레미탈’이란 자체 브랜드로 이미 몇년 전부터 대형 공사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가정 내 소규모 보수공사에 알맞게 제품화한 것이라 이미 작업효과와 품질은 인정받은 상태”라며 “IMF시대를 맞아 소비자가 직접 작업하는 DIY(Do It Yourself)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외전환사채 2,000만 달러 조달

정환진 본사 부사장, 주간사인 대우증권의 황건호 전무, 「AIG Asian Infrastructure Fund」의 운용회사인 EMP사의 모하크루세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전환사채(CB)를 통한 2,000만달러 규모의 외자를 유치했다. 따라서 7월 16일 한일측이 2,000만 달러의 해외CB를 발행하고 이를 「AIG AIF」가 인수했다. 발행조건은 만기 7년, 금리 5%에 전환가격은 2만원이다. 「AIG AIF」는 아시아지역의 사회기반시설 관련 기업을 위주로 투자하는 국제적인 펀드

로 미국에 소재한 EMP사가 펀드운용을 담당한다.



아세아시멘트공업(주)

창립 제33주년 기념식 개최

11월 20일 창립 제33주년을 맞아 15층 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병무 회장, 이윤무 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여하였다. 이윤무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그동안 열심히 일해준 임직원 모두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모범사원 표창과 장기근속자에 대한 표창수여도 겸했다. 특히 이병무 회장이 30년 장기근속 표창을 받게 되어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외의 제천공장 및 분공장에서도 공장장 진행하에 자체 기념식을 가졌다.



ISO 9001, 9002 품질규격인증 획득

지난 11월 2일 ISO 9001, 9002 국제 품질규격인증을 획득했다. 한국건설품질인증원(KICM-QA)에서 수여한 ISO 9001, 9002 인증을 위해 본사 및 제천공장에서 지난 '97년 9월 실무작업에 들어간 아래 1년여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써 포틀랜드 시멘트 1, 2, 3, 5종에 대하여는 ISO 9001인증을, 레미

콘 및 아세아 몰탈에 대하여는 ISO 9002인증을 획득하여 ISO규정에 근거한 품질경쟁력 및 신뢰성의 제고, 품질경영 합리화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신양회공업(주)

계열사 (주)진성래미콘 합병

지난 8월 25일, 충북 단양공장 및 전국 각지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총 4,158억 원의 자산재평가차익이 발생, 자기자본이 확충돼 자금조달 및 채무보증 여력이 커짐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계열사인 (주)진성래미콘을 합병하였다. IMF 이후 건설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감소로 당분간 영업 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기업체질 강화차원에서 서두르게 된 이번 자산재평가로 '97년 말 기준 661 %이던 부채비율이 199%로 낮아졌고 33.4%의 자분을 갖고 있던 (주)진성래미콘의 합병으로 경쟁력을 높이게 됐다.



한라시멘트(주)

이집트에 시멘트 80만톤 수출계약

지난 6월 17일 시멘트 30만톤 수출계약에 이어 6월 30일 세계 유수의 시멘트회사인 시멕스(Cemex)사와 시멘트 50만톤 수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200백만달러 규모의 시멘트 80만톤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출은 시멕스사가 이집트 터미널에 공급하는 물량으로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은 연안 유통기지 건설과 연계되어 지속적인 추가수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출은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 반제품인 크링 카와는 달리 완제품인 시멘트를 수출함으로써 설비 가동율과 수익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조합 정기 대의원회 열려

9월 29일 한라아파트 소극장에서 조합원 및 내외 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전경택 노조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도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노사가 일치단결하여 생산성 향상 및 매출증진에 앞장서자”고 호소했다. 최규남 사장도 축사를 통해 “그 동안 노사가 보여준 자구노력의 의지와 신념만이 경영정상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하고 “이번 총회를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창출하는 시발점을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